

군산대, 원양승선실습 출항식

실습선 새해림호 코로나19 극복하고 대양 향해 '기지개'

군산대학교는 28일 오후 3시 국립군산대학교 실습선 전용 부두인 군산항 다목적관리부두에서 2022학년도 원양승선실습 출항식을 가졌다.

군산대학교의 원양승선실습은 1982년 308톤급 선미트를 선 제해립호를 이용해 첫 원양승선실습을 시작한 이래 올해 41년이 되었다.

올해 원양승선실습에는 해양산업융합과학기술학부의 해양생산시스템전공과 마린엔지니어링전공 학생 33명, 지도교수 2명 및 승무원 25명 등 총 60명이 참여했다. 실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동안 진행하던 국제항로 항해를 대체하여 부산, 제주 등 우리나라 동서·남해안 등 근해와 연안항로를 항해할 예정이며, 군산항에 귀항하



기까지 32일 동안 진행된다.

승선 실습에 이용되는 새해림호는 한진중공업에서 건조되었고, 2019년 군산대학교에 도입되었다. 총톤수 2,996톤, 전장 96.45m, 형폭 15.00m, 형심 7.60m 항해속력 14노트, 순항거리 8,000해리, 최대 승선 인원 110명으로 최첨단 항해 및 기관설비와 해양조사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현재 차세대 해양수산인재를 양성하는 요람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원양승선실습은 국제항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실습으로, 장기간 장거리 국제항로를 항해하면서 해상생활 적응 능력, 국제항만 출입항을 위한 업무절차 협수로 항해 및 대양항해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실습기간 동안 해양생산시스템 전공 학생들은 과학어군탐지기를 이용하여 서해역에 대한 어장탐색, 트롤조업실습을 통한 어종식별, 어획어류의 종조성 및 변동 조사 연구에 참여해 어업관리능력을 함양하고, 국제해상중물에 방규칙, 선박조종기술, 레이더 항법, 전파항해, 지문항해, 천문항해, 해상교통관제, 해상인명안전설비관리 기술을 익혀 고급항해사의 자질을 연마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주차난 해소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선다.

주차 질서 확립 위한 첫걸음

익산시, 무인 유료노상주차장으로 주차난 '해소'

익산시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선다.

시는 모현동 신시가지 일대에 유료 노상주차장 28면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으로 주차장 이용 요금은 공영주차장(노외)과 동일하다. 지난 17일 노상주차장 및 유료시스템 등 설치를 완료했으며, 시민 홍보와 유료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 내 최초로 설치된 이번 무인 유료노상주차장은 시민들이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7월 한 달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주차장 이용

방법과 요금 정산 등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흐름 방해가 심각해지고, 기존 무료 노상주차장에 발생하는 장기 주차와 적치물 등 주차장 사유화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 폭 일부를 활용한 유료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로가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고위험·감염취약시설 방역담당자 워크숍

군산시보건소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소는 29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를 위해 관내 고위험·감염취약시설 107개소 방역관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추세지만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확진자의 사망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감염취약시설을 책임지는 방역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건소는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시설 내 집단감염 대응 방안, 재유행 시 대처방안 등을 방역관리자들에게 교육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발생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지금도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안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는 감염취약시설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이번 워크숍 실시로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장마철 대비 하수도 점검 총력

주요 간선도로·상습침수구역·하수처리장·배수펌프장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

군산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상습침수지역 및 주요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까지 주요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 353개소, 보수 21개소 등 점검 및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대코아 사거리 등 주요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으로 퇴적토, 낙엽, 쓰레기 등 이물질질을 준설해 하수관로 통수단편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하수관로 외에도 배수펌프장, 수문, 하수처리장 등 140개소에 대한 방재시설에 대해서도 기계, 전기 민간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가동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배수펌프는 집중호우나 해수위가 높아지는 민조시간 배수처리 지연으로



군산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상습침수지역 및 주요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해 인위적으로 배수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긴급상황에 가동이 안 될 경우 많은 침

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가동테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군산시는 7월 1일부터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개소, 운영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는 학대로 가정에서 즉각 분리조치된 만18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피해아동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등을 수행한다.

시는 작년 7월 남아용 쉼터를 개소,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여아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올해 여아 쉼터 설치를 추진했다.

쉼터는 46평 규모로 생활공간과 심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장, 보육사,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이 아동의 보호와 상담·심리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건설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로 가정에서 분리되어 일시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상반기 공무원 이·퇴임식 개최

익산시가 29일 영등동 소재 공 웨딩홀에서 상반기 이·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이·퇴임식은 이영성 경제관광국장 강태순 복지국장 등 29명의 이·퇴임자와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선배들의 인생 2막을 축하하는 식전 공연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된 이·퇴임식은, 후배 공무원들의 격려를 담은 동영상 상영과 후배 공무원의 송사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의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소회하는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진솔한 소회 시간에는 그동안 공직 외길 인생 속에 겪었던 아픔과 보람이 고스란히 전달돼 행사장이 숙연해지기도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희망·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대상 교육

익산시는 저소득층의 성공적인 자립과 건전한 재정 상태 유지를 돕는다.

시는 29일 모현도서관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리적 금융소비'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희망·내일키움통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통장 가입자들의 중요 해지를 방지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근로활동 등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자립형성 지원사업으로 탈수급과 폭돈 마련의 기회를 마련해준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자립역량교육을 통해 통장 가입자가 중요 포기 없이 끝까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립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